

DVD 증정

기도로 움직이는 배

둘로스

DOULOS
bringing knowledge, help and hope

떠다니는 유엔 세계 50여 개국 350여 명의 사역자들이 세계를 향해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세계 최고령 여객선 운항 중인 여객선 중에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63세).
세계 최대 선상 서점 여러 나라 언어로 된 6천여 종 50여 만 권의 도서를 전사하고 판매합니다.

둘로스호 최초 한국인 단장 최종상 목사의 사역일지

추천! 강승삼(한국세계선교협회 사무총장), **강준민**(동양선교교회 담임목사),
김정환(극동방송 사장), **오정현**(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이시영**(전 주유엔대사), **조지 워배**(오랜국제선교회 설립자)

※둘로스호 한국 방문 일정:
포항(6월 22일~7월 3일) _ 부산(7월 6일~7월 23일) _ 목포(7월 26일~8월 7일) _ 인천(8월 10일~8월 28일)

홍성사. T.333-5161 F.333-5165 http://www.hsbooks.com

속사람 성숙을 위한 당.신.의.길잡이

성숙자반

걸사람의 위선을 벗고, 속사람의 성숙을 이루어 가는 기쁨!

인간의 외적발육이 성장이려면, 내적발육은 성숙입니다. 외적발육인 성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성장은 20대에 정점에 달했다가, 그 이후부터는 도리어 쇠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숙에는 끝이 없습니다. 성숙을 위해 애쓰는 자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성숙해지고, 나이가 원숙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 계속 성숙해져 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걸사람의 성장이 아니라, 속사람의 성숙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책머리에'에서 차례 믿음/목/회개/말씀묵상/주님의 기도/십계명/사도전경/성령의 은사/사랑/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이재철 저음/민음의 글들 247/A5/448면/13,000원

홍성사. **STRAWBERRY SHORT CAKE BY HONGSUNGSA** **사고 판독**

책이 있는 빵집을 시작했습니다. 상호는 '스트로베리온더쇼트케이크'가 흥성사입니다.

弘盛社 Hong Sung Sa, Ltd. 121-883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196-1 TEL. 333-5161 FAX. 333-5165 http://www.hsbooks.com E-mail: hsbooks@hsbooks.com *이 소식지는 무가치물입니다.

2007년 6-7월 · 15호

세계 최대 선상 서점 한국 입행!

둘로스

좋은 책을 모든 이에게 Good Books for All

둘로스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해양여객선이다. 타이타닉호보다 2년 늦은 1914년 건조된 이래 '메다나'(1914년), '로마'(1948년), '프란카 시'(1952년)라는 이름으로 화물선, 이주자수송선, 여객선 등으로 사용됐다. 지난 78년 독일에 본부를 둔 국제구호단체인 'GBA'(Good Books for All: 좋은 책을 모든 이에게)가 구입, '둘로스'라고 명명하고 현재까지 103개국 560여 항구를 방문하며 구호와 문화교류활동을 펼치고 있다.

'둘로스'는 헬라에서 따온 것으로 그 의미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세계 50여 개국에서 모인 350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무보수로 일하는 국제사적 공동체로서 떠다니는 유엔, 떠다니는 지구촌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둘로스는 세 가지 공동목표, 곧 지식·구제·소망을 전하기 위해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머물러 살며 함께 일한다. 현재 세계 최대의 선상 서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과학·의학·스포츠·예술·요리 어린이 도서 등 6천여 종, 총 50여 만 권 이상의 도서를 전서 판매하고 있다. 정박 기간 동안 연방대와 주재에 맞춘 각종 세미나, 컨퍼런스 등을 주최하며 국가 간 이해를 도모한다. 문화교류를 위한 어린이 초점 프로그램에는 하루 천 명 이상의 어린이들을 초대한다. 해변 일리는 국제선선의 밤에는 세계 각국의 민속춤과 음악, 드라마, 마임 등의 공연이 열린다.

둘로스는 구호활동도 활발한데 그 영역은 문자공급, 의료, 교육시설 정비, 진료활동, 교육 도서 기증 등 다양하다. 가장 주요한 사역은 장악한 지역의 교회를 돕는 일이다. 기도모임 집회 등을 개최해 현지교회 사역자를 돕고, 교회에배에 참석해 강해를 하거나 둘로스 사역을 소개하기도 한다. 특히 전도팀은 지역교회와 함께 노방전도를 동역하기도 한다.

둘로스의 호출부호는 9HK7이고 선체 길이는 130.35미터, 폭 16.54미터, 총본수는 6,804톤, 순항속도는 10노트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대양을 항해하는 기복을 세워 지난 92년에는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다. 둘로스의 제장은 방문하는 국가들로부터 얻는 후원금과 기부금 등에 의해 채워지고 있다. 한국에는 지난 1992년과 2001년에 방문했고, 이번 2007년 방문은 세 번째이다.

2007 둘로스 한국 방문 계획과 준비일 연차서
포항 6월 22일~7월 3일 doulus Pohang@gbships.org
부산 7월 6일~7월 23일 doulus Busan@gbships.org
목포 7월 26일~8월 7일 doulus Mokpo@gbships.org
인천 8월 10일~8월 28일 doulus Incheon@gbships.org
한국요청 031-713-5775 info@kr.am.org

둘로스 국제공동체 최종상 단장

최종상(Daniel Cheel) 목사는 2004년 9월, 비서구인으로는 최초로 둘로스 국제공동체 단장으로 취임했다. 1952년 강릉에서 태어나 1971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는 한국에서 경영학과 무역학을 공부했으며 런던 신학교(London School of Theology), 첫 런던하이델베르크에서 신학사와 철학박사학위를 받고 같은 대학에서 신약학 석사학위와 연구교수를 지냈다. 1978년에 한국을 방문한 오웬선교회의 로고스노(8)에서 동역 자원봉사를 시작하면서 선교 사역에 뛰어들었고, 그 후 로고스와 둘로스에 순신하여 세계 순회 사역에 참여했다. 둘로스 단장으로 사역하기 전에는 1997년부터 약 6년 반 동안 영국 런던 외곽에 이스턴브릿 교회를 개척하여 영국인들을 대상으로 목회했다. 박사학위 논문(Paul as Apostle to the Gentiles)는 로마서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국내외 학자들에게 찬사를 받았으며 영국 퍼티노스의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행민)의 사도가 쓴 로마서(에이)를 번역한 저록으로 출간되었다. 사도 바울을 본받아 선교사, 목회자, 신학자의 영향을 갖춘 영리한 전도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최종상 목사는 둘로스 단장직을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주신 사명으로 알고 온전히 기도하며 감당하고 있다.

《기도로 움직이는 배 둘로스》 본문 소개

프롤로그
블라디미르토크에서 온 편지

이 책은 둘로스의 포괄적인 사역이요기도하는 단장으로 계획되는 2년 동안에 내가 직접 보고 배우며 경험한 이야기를 쓴 것이다. 그러다 보니 부득이 나와 관계된 일들이 조금 더 언급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이 책을 통해 살아 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거두시길 간절히 소원한다. 이야기가 아니라 선교지에서 느낀 원리도 조금씩 곁들여보고 현장에서 수집한 정보도 나누었다. 부득한 정보는 제프리 존슨의 (세계가도 경보)(2005년 평문판에서 불충족을 미리 밝혀 둔다.

단장이라는 자리는 나로 하여금 남보다 더 가까이서 둘로스의 동행하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지켜볼 수 있게 하였다. 하나님의 손길은 곳에 어김없이 기적이 일어났다. 그것을 가까이서 보기도 하고 조금씩 참여해 직접 경험한 것은 축복이요, 특권이었다. 거기엔 늘 기쁨과 감격이 있었다. 둘로스는 국제선교공동체의 삶과 사역을 지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고백하건대, 나는 역량이 부족한 사람이다. 게다가 가진 과도를 만나듯 우리는 늘 어려움에 직면해 왔다. 그러나 둘로스의 참 단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진히 나를 인도해 주셨다.

이번 놀라운 일들은 행하신 주님께서 일할 줄을 알려나 널리 알고 싶어 하신 까 하는 생각에 들었다. 하지만 선교나 보고서는 시간제한 때문에 두어 가지 밖에 간증할 수 없었다. 나는 우리가 방문한 세계 도처에서 본 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을 좀더 많이 또 자세히 보여 드리고, 우리가 경험한 감격을 여러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 아직 일기가 절반가량 남아 있지만 하직

했으면 좋겠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둘로스 복음선사 350명 정도 일꾼을 태우고 추수할 발판으로 가야 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세계 도처에는 예수님의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다. 하지만 만 200년 이후 둘로스는 더 이상 항해할 수 없게 된다. 물론 둘로스가 그 때는 96세의 고령이 되기도 하지만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세계 해양 규정상 2010년 이후 대양을 횡단하는 모든 여객선은 불에 타는 재료를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다. 즉 나무로 된 갑판이나 창고, 사무원, 불이 빨리 번지는 카펫이나 커튼 등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기압과 물을 싣는 탱크도 유시서 배가 만항으로 기우는 것을 막기 위해 한층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 규정은 이미 여러 차례 전에 공포되어, 새로 짓는 배들은 이 규정을 따르고 있다.

세계의 정적인 필요를 감안할 때 복음선 두 척은 운영해야 한다. 그래서 2014년까지 규정 적용을 면제해 줄 수 있는지 신청을 내기로 했었다. 우리 사역자들은 둘로스의 정적 정을 놓고 2006년 2월 14일부터 매주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고 있고, 본부는 그해 9월 15일에 정식 신청을 냈다. 우리가 태우 함께 기도하 나가 하려는 신앙이 이렇게 말했다.

"상선 규정 대상에서 면제가 된다 해도 그 혜택을 받아들이 2010년 이후에도 계속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 2010년에 그만두는 것이 나을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배에 손 볼 곳이 너무 많아 안전이 열려질다."

기관장 역시 같은 말을 했다. 그러면서 만일 2010년 후에도 계속 운영할 것 어떤 지금부터 계획과 예산을 세워 필요한 수리들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현안은 항해 중에 항해지로부터 브리지에서 요동하는 갑주론 바다와 흰 구름으로 아름답게 수놓인 하늘과 사연을 둘러싼 먼 수평선을 바라본 적이 있다. 그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전한 감동을 주었다. 나는 계속 되뇌었다.

"주님, 당신의 은혜로 이렇게 오래된 배가 계속 안전하게 항해하고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예정하신 때까지 사역할 수 있도록, 또 그때까지 늘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이 배가 2010년 이후에 안전하게 있을 것 같으면 더 이상 운영을 연장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복음선사 주옵소서."

(중략)

전 세계 교회가 참여하여 세 배를 마련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 교회와 신도들이 특별히 많은 뜻을 모아주는 축복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새로 단장된 둘로스 2호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과 기록 사역을 가득 싣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큰 대륙과 작은 섬을 돌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상상해 본다. 2호보다 새로운 3호에 청년 사역자들에게 세계의 추수 밭을 보여 주며 현장에서 훈련시키고 추수하게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강한 손길과 능한 말로 둘로스와 함께하신 주님께서 둘로스 2호를 통해 더 큰 일을 계속해 가시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그래서 더 많은 주님이 주님의 사명을 감격하는 그날을 상상해 본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은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의 의지할 주님이시 (사 45:6).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 (사 45:15)과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생물과 그 거인들이 여호와께 세 노래로 노래하며 항 끝에서부터 찬송할 날을 상상해 본다(사 44:23). 그리 하여 대지마다 바다를 넘을만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엔 가득 하리라(사 24). 할렐루야!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이름이 수 천 배로 높게 하옵소서 이 수 천 배에 나타 내시옵소서"(시 33).

스트로베리 온더 쇼트케이크 바이 홍성사는

책맛, 빵맛, 커피맛의 장인들이 에디팅한
'책이 있는 빵집'입니다.

STRAWBERRY ON THE SHORTCAKE BY HONGSUNGSA

